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인식 분석을 통한 청년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포토보이스 (Photovoice) 방법론 활용*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일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으로서 대학생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진로에 대한 기피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서울 소재 대학의 SEN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5명의 대학생과 함께 2주 간격으로 3회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는 연구기법인 포토보이스 (Photovoice)라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경제라는 대주제 하에 참여자들이 선정하여 다룬 세 가지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란', '나에게 SEN이란', '나의 향후 진로는'이었으며, 각 주제별로 참여자가 사진을 통해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유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사회의 '다양성', '배려', '협동', '협력', '도움', '이해상충' 등으로 찍은 사진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 대학생들은 SEN에 대하여 '즐거움', '행복', '희망', '공동체', '소속감', '애증' 등으로 찍은 사진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 대학생들은 향후 진로에 대하여 '막막함', '하고 싶은 일', '공공에 대한 진로' 등으로 찍은 사진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사회경제적 조직으로 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청년층의 진로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핵심주제어: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동아리, 포토보이스, 진로결정요인

I. 서론

최근 저성장·저고용 현상으로 인해 고용구조가 변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사회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 더욱 심각해진 양극화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이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년)을 제정하였다.

사회적 경제란 자본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는 경제개념이며, 이윤창출이 최고의 목표인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적 개념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하며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실현, 민주적 의사결정, 노동중심의 수익배분,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여러 학자가 주장하였다(정태인·이수연, 2013; 신명호, 2009, 2013; 장원봉, 2006).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회적 자본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조직들이며,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모두 1,906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실시한 첫 해인 2007년 55개 업체에서 11년 동안 1,851개 기업이 증가한 것이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매년 증가한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중간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하며,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지역통합 등의 사회적인 목적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업활동을 통한 이윤추구를 수행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고용문제를 포함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지방정

* 이 연구는 행복나눔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주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aypark@cau.ac.kr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lih2114@cau.ac.kr

· 투고일: 2018-07-09 · 수정일: 2018-08-27 · 게재확정일: 2018-08-29

부를 비롯한 진흥원 등에서 다양한 지원과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에서 적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는가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성 및 확장성 등 미래전망은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위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혁신과 열정 그리고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미래 진로 대안으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원조직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인식뿐만 아니라 협업과 공유를 통한 규모경제의 실현과 혁신의 도구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학습하고 경험하여 청년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년들의 미래대안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을 제외하고는 일자리로서 사회적 경제를 경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이 별로 없어 사회적 경제기업 등은 역량 있는 청년들의 미래진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사회적경제의 지속성과 혁신 등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청년들이 유입되어야 하며 사회적 경제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영역이 청년들의 미래진로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층으로서 대학생들이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의견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증대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곽선화, 2010; 서운석, 2012; 심미영 외, 2012; 이신모, 2012; 강미라 외, 2013). 현재까지 진행된 사회적기업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양적연구 방법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갖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알아볼 것이며,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진로에 대한 장애에 대한 요인을 살펴 볼 것이다.

II. 선행연구

2.1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는 유럽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시장경제의 원칙과는 달리 사회적 원칙하에 경제활동을 하는 광범위한 조직을 의미하며, 호혜성 및 자조 등의 사회적 목적을 경제활동과 연계시키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한상진, 2008).

사회적 경제는 기업, 협동조합, 민간단체, 상호공제조직 등에 의하여 수행되며, 이윤추구 보다는 구성원 및 공동체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시 하며, 자율적인 경영,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

차, 이윤분배에서 자본을 우선시 하기 보다는 사람과 일을 더 우선시 하는 원칙을 따르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라고 하였다(Defourmy & Develtere, 1999).

즉 사회적 경제에서는 경제 행위가 자본투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구성원 및 공동체, 즉 사람과 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에서는 일찍이 협동조합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 발달해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의 복지 정책이 후퇴됨에 따라 새로운 발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탈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업문제와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공공서비스 등이 민영화되면서 정부 정책이나 시장경제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경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지역 주민의 안정적 고용과 삶에 대한 질을 높이는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경제 조직이 확산되게 되었다(Defourmy & Develtere, 1999; 노대명, 2009; 신명호, 2009).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새로운 사회적 경제’는 이전 시대의 전통적 사회적 경제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노대명, 2009). 기존의 전통적 사회적 경제 조직은 회원 중심의 폐쇄적 구조지만,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기존의 전통적 사회적 경제가 구성원간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수익배분 제한 운영방식을 추구하는 반면, 새로운 사회적 경제는 고용창출 및 사회연대 추구라는 목적을 중시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정부나 다른 시민사회의 주체와 협력하는 개방형 구조이며, 기존의 전통적인 민간단체에 비해 생산활동에 관련된 경제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의 네 가지 영역을 포괄하며, 사회적 기업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는 생산 조직 뿐 아니라 생활협동조합이나 지역화폐 운동처럼 소비자 교환을 전문으로 하는 경제조직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하였으며(신명호, 2009), 송백석(2011)은 경제행위자의 활동공간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제3섹터가 주체가 되는 경제영역이며, 국가와 시장의 영역이 아닌 시민사회의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에서 생겨난 자발적인 시민조직이 주체가 되어 행해지는 경제활동으로 규정하였다.

유럽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경제의 7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둘째, 구성원 자격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셋째, 구성원에 의해 조직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넷째, 연대와 책임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섯째,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여섯째, 잉여의 대부분은 지속가능한 목표, 구성원 이익과 보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구성원 및 이용자의 이익, 기타 보편적 이익 등을 골고루 안배해야 한다. 즉 사회적 목적, 자발성, 민주성, 연대와 책임, 구성원 이익 등이 사회적 경제의 핵심이

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개념의 출발점은 시장 중심 경제의 여러 가지 폐해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안적인 경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는 인간의 경제 행위 가운데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와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이며, 이제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를 지속하게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리라고 주장한다(노대명, 2009; 신명호, 2009).

2.2 진로의사결정과 정서·성격요인

기존의 진로상담이론 및 진로의사결정이론은 합리성의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개인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며 최대한 많이 수집한 후에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하는 것을 추구했지만 최근의 이론 및 연구에서는 기존 이론과는 다르게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정서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황윤미, 2014; Hartung, 2011).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자극이나 지각은 정서를 동반하며, 생성된 정서는 개인의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동기요인이 되며, 이는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정서는 사회적 적응, 사회적 관계, 의사결정, 행복을 촉진하고, 보편적이거나 문화 특수적인 현상들을 반영해 드러내준다(Lazarus, 1991; Kidd, 1998). 이로 인해 정서는 개인 진로행동의 기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줄 수도 있으며(Hartung, 2011), Emmerling & Cherniss(2003)는 진로 탐색 시 고려하는 진로 대안의 수, 노력, 시간, 정보 통합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이 문화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체험한 독특한 심리적 경험은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을 보다 개별적으로 유의미한 과정으로 이끌어 간다고 언급하였다(Blustein et al., 2004). 이 때문에 진로 탐색 시 정서를 다루지 않고 인지와 행동만을 다루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Kidd, 1998).

Saka 외(2008)은 개인 정서와 성격이 진로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이며 경험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성격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Emotional and Personality Career Difficulties (EPCD) 척도를 개발 하였다. 이 척도는 ‘비관적 관점’, ‘불안’, ‘자기 및 정체감’ 3개의 상위 군집으로 분류하였으며, 하위 11개 요인(과정/직업 세계/자기통제성에 대한 비관적 관점, 과정/선택과 관련된 불확실성/선택과정/선택 결과/특성불안, 자아존중감, 불안정한 자아정체감, 갈등적 애착 및 분리)으로 구성되었다.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연구된 개인의 정서 성격적 요인들은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양명주·김봉환, 2015).

개인이 일하고 싶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결정하는 것 또한 진로의사결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입사를 기피하도록 하는 정서 성격적

요인을 탐색해보는 것은 사회적 경제 진로상담 및 정책수립 및 방향설정에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2.3 포토보이스의 개념 및 특징

포토보이스는 사진 (photography)을 통해 개인이 느끼는 현상에 대한 인식과 통찰력을 살펴볼 수 있는 개인 참여적 실험 연구(김진희 외, 2015)이며, 특정 주제에 대한 사람의 인식 및 행동 등을 사진술과 결합하여 연구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포토보이스는 1990년대 초 참여적 행동연구의 창의적 접근으로 발전되었으며(Wang, 1999), Wang & Burris(1994)는 공동체기반의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특정한 사진의 기술을 통해 주변화된 집단의 구성원들을 임파워먼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포토보이스는 주변화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 할 수 있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며(Palibrodz et al., 2009), 포토보이스의 장점을 살펴보면 공동체 기능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기술을 개발시키며,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는 비판적인 사고와 분석의 기술을 배우게 되며, 집단 과정을 통해 동의와 협력,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Blackman & Fairey, 2007). 또한 김도현(2016)은 사진의 활용이 교육적으로 주변화된 학생의 삶과 경험을 탐구하는데 도움이 되며, 교실 수업의 간주관적 탐색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포토보이스의 활용하는 주요한 세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또는 소속된 집단의 강점과 고민거리들을 기록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속의 이미지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설명해주며,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새로운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된다(이원지·장승희, 2013). 둘째, 사진을 가지고 진행되는 소규모나 대규모의 그룹토의를 통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비판적 대화와 지식을 증진시킬 있으며, 포토보이스는 참여자가 사진 이미지 해석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신이 찍은 사진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로 사진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다(Wang, 1999). 셋째, 정책결정자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포토보이스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법으로 지역사회 주민들 또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이미지를 통해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한다(Wang, 1999). 포토보이스를 대학생이나 청년들에게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inthorn & Marsh(2016)는 미국의 남서부의 뉴멕시코 대학에서 원주민 대학생이 공간과 장소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탐색하였으며, 이는 원주민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연구이었

다.

Cook(2014)은 대학생이 느끼는 과학에 대한 낯설음을 낮추고,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였으며, 그 과정은 학생에게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발전시키면서 과학을 통한 그들의 지역공동체를 연결시키는 플랫폼으로서 환경과학주제의 중요성에 대한 흥미와 배경을 제공하였다. Miller et al.(2016)는 야생동물과 목초지와 연관된 케냐의 마사이마라 지역에 대한 대학생의 관점을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을 나누면서, 야생동물과 목초에 대한 경제적·문화적·심미적 역할의 중요성과 자원관리의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국내에서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고 있다. 워크숍 형태로 진행된 포토보이스 프로그램에서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 경험을 다룬 연구(이재희 외, 2012)이며, 지적장애인들이 인식하고 경험한 사회적 포함과 소망 등의 탐색을 한 연구(전정식 외, 2013)이며, 은퇴한 여자 선수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장벽과 대안을 살펴본 연구(김경오·이규일, 2013)이며,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주 후 초기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이재희 외, 2012)이며, 유아통합지원 실천의 지역사회변화 인식에 관한 연구(홍미라, 2014) 등이 있다. 대부분 연구대상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이 대상이었고, 일부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생이 연구 참여자인 연구로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인식한 노화와 자신의 노후에 대한 전망을 탐색한 연구(이원지·장승희, 2013)이며,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양체육수업을 통한 신체활동의 의미와 문제점들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김경오, 2014)이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관한 연구(이현주, 2015)이며, 무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스스로 발견과 탐색에 관한 연구(최진실, 2016)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연구 동아리 (Social Enterprise Network)에 속해 있으며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포토보이스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대학생이 인지하는 사회적경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포토보이스는 연구 참여자의 고유한 경험, 의미, 가치관, 그리고 문제점 등을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포토보이스의 특징은 사회적 경제를 학습한 대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적경제의 모습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위치와 지속적 성장과 진로탐색의 실천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7월 17일 부터 7월 31일 까지 서울 소재 대학의 SEN 동아리에 연구 참여자 모집 공지를 하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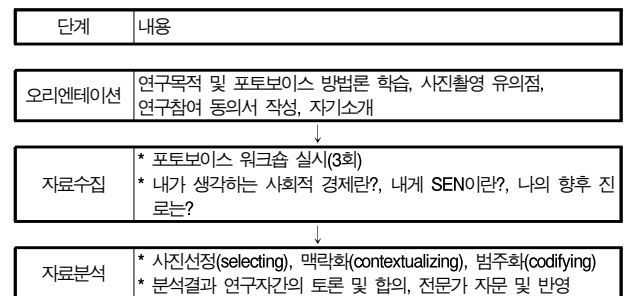
참여를 신청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주제인 청년의 사회적 경제 인식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였다. 연구 시작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연구는 2주일 간격으로 총 3회가 진행되었으며 각 회당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최종 참여 학생의 선정은 학교와 동아리의 적극적 참여 활동을 고려하였고, 워크숍의 주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는 오리엔테이션에는 5명(남학생 1명, 여학생 4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속적인 참여의사를 나타내어 이 학생들이 최종 연구참여자로 결정되었다. 참여학생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성명	학교	전공	학년	성별	나이
송**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4	남	25
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2	여	21
이**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4	여	23
주**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4	여	24
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여	25

3.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오리엔테이션, 자료수집 단계, 자료분석 과정의 순서로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을 실행하였다. 실행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포토보이스 실행과정

포토보이스 연구참여자 주도형의 연구방법으로 참여자의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본 연구에 대한 목적 및 의의, 진행과정 및 연구참여자 간의 관계형성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포토보이스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적용사례, 포토보이스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사진촬영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참여자에게 포토보이스에 대한 설명과 사진 촬영시의 주의점에 대하여 구체적 안내를 하고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연구동의서는 연구목적, 방법 등의 내용과 연구 진행시 녹음이나 녹화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연구

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연구에 사용된 본인의 사진을 논문에 실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소개는 참여학생이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의사소통을 하도록 진행하였다. 자기소개 후에는 참여자 각자가 본 연구에 거는 기대사항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론을 하였다.

포토보이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면서 참여자들은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 하에서 자유토론을 통해 다음 회 차 주제를 선택했다. 첫 번째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란?’이었다. 참여자에게 선정된 연구주제에 관하여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하며, 일상에서 그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장면이 순간 포착되면 바로 사진을 찍고 사진촬영 장소, 시간, 그 사진을 찍은 이유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촬영한 사진 10장을 다음 회 차 날까지 연구자 이메일로 송부하도록 안내했으며, 이 때, 10장 주제를 더 잘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사진을 4장 씩 고르도록 했고, 4장의 사진은 미리 전자파일로 배부된 포토보이스 노트에 사진의 제목과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적기하도록 하였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진행된 포토보이스 1회 차 - 3회 차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에게 미리 보내온 연구 참여자의 사진들을 프로젝트로 띄워 전 참여자가 공유한 상태에서 본인의 사진을 설명하고 다른 참여자들은 해당 사진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함께 나누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회기가 끝나기 전에 참여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다음회기 주제를 선정하고, 이게 선정된 2회 차 주제는 ‘나에게 사회적기업 동아리(SEN)란?’이었고, 3회 차 주제는 ‘나의 향후 진로는?’이었다. 3회기까지의 포토보이스 활동을 마친 후 이번 연구 참여과정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본인의 이해도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참여자들 간 의견을 나누었다.

3.3 분석방법

포토보이스 연구의 결과분석에서는 참여자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이기에, 사진의 주제와 내용은 참여자가 정한 것을 그대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재희 외, 2012). Wang & Burris(1994)의 포토보이스 분석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먼저 사진을 선정하며 (Selecting), 사진에 의미를 맥락화 (Contextualizing)하며, 코딩을 통한 범주화 (Codifying)를 포함하며, 모든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사진 선정은 ‘사회경제’의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표현한 사진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사진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사진과 제목은 물론 그 사진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강조했거나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내용을 비교·검토하면서 연구자간의 합의와 토론

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포토보이스의 두 번째 분석 단계인 맥락화는 표현한 주제 사진에 대한 각 참여자의 의미와 해석, 전체 그룹토의를 통해 전사된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세 번째 범주화 단계는 앞서 맥락화된 자료를 가지고 연구자들이 각각 코딩을 한 후 자료를 서로 비교 검토하면서 주제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각 주제를 나타내는 사진 중 일부만 논문에 실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사진을 선택하며, 사진의 의미와 맥락을 제공하는 과정 자체가 연구의 진실성 확보에 기여한다. 또한 참여적 실험연구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연구참여자들 간의 협의,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검토를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보다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포토보이스 연구의 기본적 진실성은 연구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분석에 참여하도록 동기화한다(김경오·이규일, 2013).

<표 2> 송**의 사진선정, 맥락화, 범주화 과정 예시

진행과정	내용
사진선정	클라우드편입을 통한 풍력발전소 설립 (주요티스터의 미니노트) 물놀이와 즐거운 건 참새도 마찬가지로 비름 증명과 비름 국제 컨퍼런스 SK 청년비상 창업경진대회 동 주민센터의 공구 대여 서비스 별마당 도서관 강남인강 주민센터의 도서관 한양Ted - 빈곤포럼
맥락화	(주요티스터의 미니노트: 자폐인 배려 별마당 도서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에게 도움
범주화	다양성 존중, 배려 협동, 협력과 도움

IV.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여러 논의를 통해 정한 주제, 사진, 포토보이스 노트, 전체 논의 및 협의 등을 토대로 연구분석을 통해 도출된 회차 별 하위주제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회기별 하위주제별 내용

회차	주제	하위주제
1	내가 생각하는 사회경제란?	-다양성 존중, 배려 -협동, 협력과 도움 -이해상충
2	내게 SEN이란	-즐거움, 행복, 희망 -공동체, 소속감, 동료애 -애증
3	나의 향후 진로는?	-막막함 -하고 싶은 일 -공공에 대한 진로

4.1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참여자들은 사회적경제가 자본과 권력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과 달리 대안적인 자원분배를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또

는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 경제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의 다양성, 배려, 협동, 협력, 도움, 이해상충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정과 배려, 사회구성원들 간의 협동, 협력과 도움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표현도 하였지만 이해상충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

4.1.1 다양성 존중과 배려

<그림 2> ‘얼굴에 낙서를 한 아이’는 사회적경제가 기존 경제방식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얼굴에 낙서를 한 아이의 사진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 ‘버스기사와 승객’는 사회적경제가 운전기사와 승객의 관계처럼 서로 간의 배려와 신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버스의 창에 붙여진 포스터의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4> ‘쥬오티스타의 미니노트’는 사회 취약계층인 자폐인들을 디자이너로 고용하여 참신한 디자인의 팬시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의 노트에 대한 사진으로 표현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배려를 은유하였다.



사춘동생이 자기 얼굴에 낙서를 한 사진이며, 이렇게 하고 길거리에 나가도 이상하게 취급 받지 않을 곳,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상한 게 이상하지 않는 곳,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이 사회적 경제 사회라고 생각한다. (주혜진)

<그림 2> 얼굴에 낙서를 한 아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승객을 모시는 버스 운전기사님의 마음이며, 목적지까지 편히 버스에 몸을 실는 승객의 마음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 없이는 버스는 운행될 수 없다. 버스운전기사와 승객의 관계처럼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서로 간의 배려와 신뢰가 당연히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유지원)

<그림 3> 버스기사와 승객



쥬오티스타는 자폐인들을 디자이너로 고용하여 참신한 디자인의 팬시 상품들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그러한 노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았다. (송정우)

<그림 4> 쥬오티스타의 미니노트

4.1.2 협동, 협력과 도움

<그림 5> ‘단체 줄넘기를 뛰는 청년들’은 사회적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주체인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한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함께 협동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단체 줄넘기 사진으로 은유하였다. <그림 6> ‘이웃과 같이 키우고 나눠먹는 산수유’는 아파트의 공동부지에서 주민이 함께 씨앗을 뿌리고 돌보고 키워서 수확해서 서로 사이좋게 나눠먹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뜻이라고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7> ‘별마당 도서관’은 삼성 코엑스몰 한가운데에 있는 도서관인데 쇼핑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쉴 장소도 제공하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며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에게 더욱 도움을 준다는 것을 도서관 사진으로 은유하였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구성원들에게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인 청년들이 한 뜻을 가지고 함께 협동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단체줄넘기에 빗대어 보았다.(한예선)

<그림 5> 단체 줄넘기를 뛰는 청년들



아파트의 공동부지에서 따온 산수유이며, 산수유나무를 주민이 함께 돌보고 키워서 사이좋게 (맛만 볼 정도로 조금씩일지라도) 나눠서 먹는 정신이다. (주혜진)

<그림 6> 이웃과 같이 키우고 나눠먹는 산수유



삼성 코엑스몰 한가운데에 있는 말 그대로 도서관이다. 쇼핑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쉴 장소도 제공하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 아이들이 코엑스와 같은 대형몰에서는 있을만한 장소도 마땅치 많은데, 아이들이 집중할 거리도 하나 생기고, 앉을 수 있는 장소도 하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송정우)

<그림 7> 별마당 도서관

4.1.3 이해상충

<그림 8> ‘돈벌레’는 사람들이 돈벌레를 보면 돈이 들어온

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믿어 온 미신이다. 하지만 돈벌레의 형태상 보기에는 약간 거부감이 존재한다. 즉 사회적경제도 사회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쉽게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9> ‘하늘’은 사회적 경제도 늘 밝기만 할 순 없을 것이지만 비가 내릴 때 기꺼이 나의 우산을 누군가와 함께 나눠 쓸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지혜롭게 극복해 낼 수 있다는 희망과 절망을 사진으로 동시에 표현하였다.



<그림 8> 돈벌레

본인은 돈벌레를 보면 돈이 들어온다는 미신을 믿는다. 또한 악충임도 알고 있다. 하지만 자주 보고 싶지는 않고 가까이 갈 수 없다. 사회적 경제와 닮았다. (이륜옥)



<그림 9> 하늘

언제 해가 쨍쨍히 빛날지, 비가 억수로 쏟아질지, 눈이 펄펄 내릴지 모르는 매일 매일 다른 모습의 하늘, 언제나 맑을 수만은 없는 법, 이런 하늘 아래 우리는 살고 있다. 사회적 경제도 늘 밝기만 할 순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비가 내릴 때 기꺼이 나의 우산을 누군가와 함께 나눠 쓸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지혜롭게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유지원)

4.2 나에게 SEN이란?

2010년 시작된 SEN은 서울지역 9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 소셜비즈니스 분야의 폭 넓은 스테디를 토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학생연합단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SEN 동아리 활동을 해 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포토토보이스를 통하여 SEN에 대한 의미와 역할을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4.2.1 즐거움, 행복과 희망

<그림 9> ‘Do What You Love’은 SEN Student Club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내가 좋아해서,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컵에 새겨진 문구로 표현하다. <그림 10> ‘함께 있어 행복함’은 같은 가치관, 꿈을 꾸는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벽에 걸린 게시판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1> ‘삶의 방향성 제시’는 SEN을 하면서 삶의 방향성을 찾았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나의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척도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를 이정표와

신호등의 사진으로 은유하였다.



<그림 9> Do What You Love

SEN Student Club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내가 좋아해서, 사랑해서 하는 일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주체적으로 좋아서 하는 일이다. (한예선)



<그림 10> 함께 있어 행복함

같은 가치관, 꿈을 꾸는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함께 고민하는 동료들이 바로 SEN이다. SEN활동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면 참 든든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유지원)



<그림 11> 삶의 방향성 제시

이정표와 신호등은 내가 어디로 가야할지, 그리고 지금 건너도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 SEN을 하면서 나는 삶의 방향성을 찾았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척도를 갖게 되었다. (송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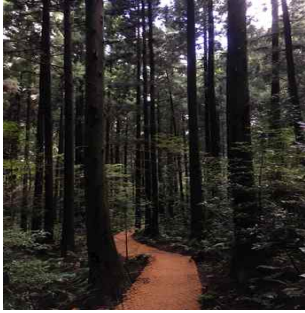
4.2.2 공동체와 소속감

<그림 12> ‘쉼터, 쉬어가는 공동체’는 사회적 경제 공부하는 동아리를 통하여 누군가와 편하게 공원에 앉아 누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쉬어가는 시간을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3>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 숲을 만든다’는 SEN도 한 개인이 아닌 여럿이 모여 울창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를 많은 나무가 모여 울창해진 숲의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4> ‘섞여 있는 음식 재료들’은 SEN에는 신선하고 다양한 의견과 사람이 모여 있다는 의미를 신선하고 다양한 재료들의 사진으로 은유하였다.



<그림 12> 쉼터, 쉬어가는 공동체

사회적 경제 공부하는 목련이다. 센터장과 육회와 술 한 잔 하고 집 가는 길에 공원에 두런두런 앉아 누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쉬어가는 시간이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편하게 들어주고 받아주는 쉼터 같은 목련이다. (한예선)



<그림 13>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 숲을 만든다.

나무 한그루가 아닌 많은 나무가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SEN도 한 개인이 아닌 여럿이 모여 울창한 공동체를 이룬다. 건강한 숲처럼 스스로 치유하고 상생하는 공동체이다. (한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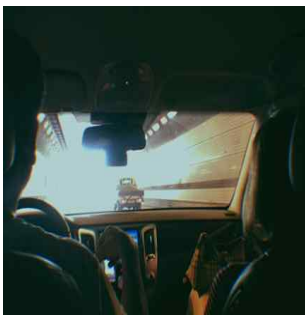


<그림 14> 섞여있는 음식 재료들

신선하고도 다양한 재료들이 섞여 맛을 내듯이, SEN에도 신선하고 다양한 의견과 사람이 모여 있으며 SEN을 생각하면 친구와 친숙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떠오름. (주혜진)

4.2.3 애증

<그림 15> ‘빛을 따라 달려가는 터널 속 차’는 SEN 활동이 차선변경도 하면 안 되고, 후진도, 유턴도 안 되는 터널 안에서 느껴진다는 의미를 터널 속의 차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6> ‘돼지 껌테기’는 SEN을 하면서는 늘 예상 밖의 상황이 전개되곤 하며, 사건 사고들 속에 발전하는 SEN의 의미를 돼지 껌테기의 사진으로 은유하였다. <그림 17> ‘밀 빠진 독’은 5년간 SEN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도 결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깨진 항아리의 사진으로 은유하였다.



<그림 15> 빛을 따라 달려가는 터널 속 차

차선변경도 하면 안 되고, 후진도, 유턴도 안 되는 터널 안에서 느껴진다. 언젠가는 빛을 보고 나갈 수 있을 거라 느껴지는 SEN 활동이며, 사회적 경제의 미래이다. (한예선)



굽는 내내 갑자기 뽕뽕 어디로 튈지 모르는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는 돼지 껌테기이다. SEN을 하면서는 늘 예상 밖의 상황이 전개되곤 한다.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사건 사고들 속에 발전하는 SEN이다. (유지원)

<그림 16> 돼지 껌테기



나는 5년간 어디에 물을 붓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콩쥐밭처럼 커다란 두꺼비라도 나타나서 구멍을 메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다. 근데 나 정말 센 사랑해요. (이윤옥)

<그림 17> 밀 빠진 독

4.3 나에게 향후 진로는?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조직으로의 진로선택과 진로의사결정에 대하여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4.3.1 막막함

<그림 18> ‘구름에 가려진 달’은 목표(꿈이)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뿌옇게 가려진 달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9> ‘힘겹게 자라는 식물’은 벽면에 붙어서 아주 어렵게 생존하는 식물을 사진으로 바늘구멍 통과하길라는 취업시장을 표현하였다. <그림 20> ‘수액을 맞고 있는 나무’는 오래 살아온 나무가 진흙에 덮이고 수액을 맞으면서까지 살려내 지고 있는 사진으로 표현되었으며, 회사가 안 맞을 것 같지만 다니게 될 것 같다는 의미로 은유되었다.



목표(꿈이)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뿌옇다. 잘 보이지 않는다. (한예선)

<그림 18> 구름에 가려진 달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저렇게까지 살고 싶었을까 이며, 바늘구멍 통과하길라는 취업시장이 떠올랐다. (이윤옥)

<그림 19> 힘겹게 자라는 식물



오래 살아온 나무가 진흙에 덮이고 수액을 맞으면서까지 살려내 지고 있다. 나무는 죽고 싶을 수도 있는데 티외로 살아지는 거다. 나는 회사가 안 맞을 것 같다. 하지만 다니게 될 것 같다. (주예진)

<그림 20> 수액을 맞고 있는 나무

4.3.2 하고 싶은 일

<그림 21> ‘BRIGE’은 단절되어 고립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가교가 되고 싶은 일을 다리라는 사진으로 은유하였다. <그림 22> ‘게임속 워너비 하우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꾸미고,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하며 살 것이라라는 것을 심즈2라는 게임 속의 집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23> ‘계단’은 대기업의 계급문화도 배우고 싶다는 의미를 계단이라는 사진으로 은유하였다.



단절되어 고립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가교가 되고 싶다. 그런 튼튼한 다리가 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 (유지원)

<그림 21> BRIGE



심즈2라는 게임에서 지은 내가 나중에 살고 싶은 집이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꾸미고,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하며 살 것이다. (주예진)

<그림 22> 게임 속 워너비 하우스



대기업의 계급문화도 배우고 싶다. 마치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나도 만약 민주적인 사회에서만 일을 한다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송정우)

<그림 23> 계단_직위

4.3.3 공공에 대한 진로

<그림 24> ‘공공 자전거 따릉이’는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진이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은유하였다. <그림 25> ‘함께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의미로 혼자가 아닌 함께이고 싶다는 것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어울려서 찍은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26> ‘메타세콰이어’는 아주 높으며, 뿌리 깊은 나무의 사진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은유하였다.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대표 공공시설물인 따릉이다. 자전거를 타고 싶은 사람들은 따릉이를 빌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사소해 보이는 배려일지라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주예진)

<그림 24> 공공자전거 따릉이



돈, 명예, 권력, 기술 등 보다 사람 중심, 사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혼자가 아닌 함께이고 싶다. (한예선)

<그림 25> 함께 하는 것



아주 높은 나무였다. 편안하고 당연한 느낌이며,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자리를 지키는 이 나무처럼 내가 어떤 길을 가도 나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이륜옥)

<그림 26> 메타세콰이어

4.4 졸업생의 사회경제조직으로의 진로는?

졸업생들의 사회경제적 조직으로의 진로선택과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요인을 심층면접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참여대상자는 김원*(교육행정 전공, 대학원생), 김지*(경제학 전공, 롯데마트 직원)이었다. 개별 심층인터뷰 결과는 주요 질문사항별로 의견을 정리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학생 때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 동아리를 바라봤던 것과 비교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에 따른 사회적 경제분야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김원*: 입사한지 2년은 됐지만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공익 기자가 하고 싶었다. 글도 좀 써보면서 이일을 해봐도 좋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결국 발목을 잡는 건 현실적인 문제이다. 사회적 경제 분야의 페이를 고려할 안 할 수 없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향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아리 했던 친구들에게 사회적기업을 안 갔던 이유를 물어봤었다. 공통적인 의견도 페이의 문제나 지속가능성, 이 회사 사회적 경제 조직이 유행에 그치고 나중에 극단적으로 없어지거나 지원도 끊기면 나의 커리어가 끊기는 문제가 있다.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 드리면 어른,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시선들이 나 어디 다녀 하면 어디라고 얘기해야 하는 그런 고민들을 했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경력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아리 친구들이 사회적 경제를 알아가고 있는데 향후에 소중한 열매로 맺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행착오는 무엇인가?

김주*: 취업을 사회적경제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나는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인재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조직에 들어갔을 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적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좋은 인력이 되어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그쪽 같은 편이라고 생각이 든다. 교육도 공익적인 일이고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고서는 이쪽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이쪽 분야에 발을 담궜나라고 물어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재학 중 사회적 동아리를 하면서 차별화된 경험들이 지금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원*: 마트업계가 침체기인데 그걸 알면서도 들어온 이유가 있는데 진지한 고민에서 마트를 선택한 건데, 그룹 이미지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마트라는 게 공익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생필품을 저렴하게 질 높게 고객에게 공급하는 일이 공익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셴이라는 조직에서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하고 만족하며 일하고 있다. 교수님이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동아리가 꼭 사회적경제로 진출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 공무원이 되든 대기업을 가든 NGO를 가든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훈련을 많이 해보면서 이것저것 시도하며 나에게 맞는 방향을 선택하고 그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인식을 갖고 어느 위치에 가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젊은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 섹터로 진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김지*: 대학 내에서의 기능이 중요한 것 같다. SEN안에서도 스터디 프로젝트를 통해서 꿈꾸고 있는데, 창업을 한다면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센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양대처럼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제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한양대는 사회혁신 랩실을 운영하고 있음. 프로젝트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고 인큐베이팅 진행을 도우면서 임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교육 등을 통해 프로젝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 준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학교에서 어떻게든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잘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분야는 굉장히 기회가 많은 곳이다. 현재의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가?

김지*: 저희 셴에서는 사회적기업가 창출이 목적은 아니다. 정부 기업 NGO NPO 사회적 경제 어디로든 나아가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셴에서 배웠던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서로가 협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지원 사업을 하듯이 함께 도울 수 있는 연계점도 충분히 많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같이 연대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꼭 4섹터로의 진출이 아니어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일이어도 사회적경제가 내 삶에 어떻게든 녹아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소비자들의 제품 평가와 본인들의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원*: 가치 있는 소비를 선택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스타벅스를 좋아하는데 친환경활동을 해서 만든 텀플러, 사회적기업이 만든 텀플러 골라야하면 스타벅스 디자인이 더 나은 기능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 비슷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주*: 사회적 경제 제품들의 디자인, 접근성 많이 떨어진다. 가치소비를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보는 게 달라서인 것 같다. 모험적으로 체험을 해 본다 맘에 드는 게 있으면 사본다 정도 인 것 같다. 스타벅스보다 예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실험적으로 빅이슈도 한번 사보고 그런 것 같다.

본인들의 경우 만약 전공이나 융합전공 형태로 사회적 경제 수업이 개설되면 다른 학생들은 수업을 선택하겠는가?

김주*: 전공으로 선택은 잘 안할 것 같다.
김원*: SK에서도 사회적기업을 강조하고 있고 학생들도 그래도 나름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김주*: SK 대기업이 유인책이 되긴 할 거다. 학생들의 구미를 당기게 할 것. 하지만 전공으로 선택하진 않을 것 같다. 한 두 과목 정도는 선택할 것 같긴 하다.

SK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김원*: 사회적기업 투자하는 건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김주*: SK가 사회적기업 분야에서는 큰손이 됐고 효과적

로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대기업에서 만난 사람들 보면 보내서 왔구나 생각이 드는데 행복나눔재단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평생직장에서 이 일을 하고 싶었던 니즈가 있었구나.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위의 개별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분야로의 진출고민은 경제적 어려움과 주변의 사회적 시선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사회 경제분야에 대한 인식개선과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동아리 경험이 현재의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공적인 일을 추구하며, 사회경제 가치를 인식하면 어느 위치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동아리 경험이 직장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학생의 사회적 동아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및 진로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4.4 추가분석

대학생들의 사회적 경제 및 진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였으며, 114부를 회수하여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41.2% 여자가 58.8%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학년 분포를 살펴보면 2학년 36.8%, 4학년 36%, 3학년 19.3%, 1학년 7.9% 순으로 나타났다.

4.4.1 사회적 기업 관심에 대한 의견

대학생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다(M=6.105)’,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유익하다(M=5.500)’, ‘사회적 기업은 구성원들간의 서로 협동, 격려, 배려, 지지를 한다고 생각한다(M=4.956)’,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다(M=4.95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이 공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

항 목	N	Mean
1.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유익하다.	114	5.500
2.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목적이다.	114	3.360
3. 사회적 기업의 재정지원 혜택은 당연하다.	114	4.386
4. 사회적 기업은 적자를 낼 수도 있다.	114	4.930
5.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업이다.	114	4.325
6.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114	6.105
7. 사회적 기업은 소규모로 운영된다.	114	3.447
8. 사회적 기업은 수평적 구조이다.	114	4.061
9. 사회적 기업의 조직문화는 가족같은 분위기이다.	114	4.105

10. 사회적 기업은 구성원들간의 서로 협동, 격려, 배려, 지지를 한다고 생각한다.	114	4.956
11.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114	4.614
12.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	114	4.754
13.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다.	114	4.956
14.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존재이유는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114	4.351
15.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의 역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취업이 어렵다.	114	3.351
16. 취약계층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114	3.140

4.4.2. 사회적 기업의 미래에 대한 의견

대학생은 사회적 기업의 미래에 대한 의견은 ‘향후에는 사회적 기업 숫자를 늘리는 데 치중하기 보다는 질적 성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M=6.105)’, ‘사회적 기업은 미래에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에게 맞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M=5.553)’, ‘일부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인건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M=5.46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이 질적 성장과 고객 맞춤 서비스에 치중해야 할 것이며 제도적 악용의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사회적 기업의 미래

항 목	N	Mean
1. 미래에는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여 영리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것이다.	114	4.974
2. 향후에 영리기업도 공유가치창출을 실천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114	5.421
3. 향후에는 사회적 기업과 일반 영리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며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비슷해 질 것이다.	114	4.877
4. 사회적 기업은 사람에게 비타민이 중요한 것처럼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114	5.193
5. 사회적 기업은 미래에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에게 맞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114	5.553
6.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존속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114	4.535
7. 일부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인건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114	5.465
8. 향후에는 사회적 기업 숫자를 늘리는 데 치중하기 보다는 질적 성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114	6.105

4.4.3. 사회적 기업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의견

대학생은 사회적 기업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의견은 ‘학내 홍보활동을 접하고 자발적인 관심을 갖게 되어서(M=5.597)’, ‘나의 전문영역을 키우고 싶어서(M=5.123)’, ‘사회적 기업 동아리 활동으로 기업이해도가 높아졌다(M=5.04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문영역을 쌓고 싶은 이유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사회적 기업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의견

항 목	N	Mean
1.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114	3.447
2. 정부의 지원자금을 받기 위해서	114	2.632
3. 학내 홍보활동을 접하고 자발적인 관심을 갖게 되어서	114	5.597
4. 나의 전문영역을 키우고 싶어서	114	5.123
5. 학교의 공간과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114	2.904
6. 창업을 위한 자발적 관심	114	4.737
7.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14	3.307
8. 학내 인맥형성을 위해	114	4.368
9. 사회적 기업 동아리 활동은 취업에 도움이 된다.	114	3.947
10. 사회적 기업 동아리 활동으로 기업어호가 높아졌다.	114	5.044
11. 사회적 기업 동아리 경력은 도움이 된다.	114	4.904
12. 동아리활동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하고 싶다.	114	3.912
13. 사회적 기업 동아리 멤버가 되는 것은 터의 모범이 된다.	114	4.132
14. 사회적 기업 동아리 활동은 인생의 전환점이다	114	4.342

4.4.4 사회적 기업의 진로 기피요인에 대한 의견

대학생은 사회적 기업의 진로 기피요인에 대한 의견은 ‘사회적 기업은 미래가 불투명해서 갑자기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불안하다(M=4.702)’, ‘사회적 기업은 체계적으로 업무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것 같아 불안하다(M=4.123)’, ‘사회적 기업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연봉으로 보상이 주지 않을 것이다(M=3.974)’, ‘내 출신 대학 정도 수준이면 사회적 기업에 가기에는 아깝다(M=3.684)’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의 연봉과 미래모습이 진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사회적 기업의 진로 기피요인에 대한 의견

항 목	N	Mean
1. 사회적 기업에 입사하면 능력이 부족한 인재로 낙인찍히는 느낌이 들 것 같다.	114	2.605
2. 사회적 기업에 입사하면 사회에서 내 능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못 받을 것 같다.	114	3.158
3. 사회적 기업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연봉으로 보상이 주지 않을 것이다.	114	3.974
4. 사회적 기업은 직원 복지가 안 좋을 것 같다.	114	3.228
5. 사회적 기업에 입사하면 향후 경력 개발에 불리할 것 같다.	114	3.123
6. 사회적 기업은 미래가 불투명해서 갑자기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불안하다.	114	4.702
7. 사회적 기업은 체계적으로 업무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것 같아 불안하다.	114	4.123
8. 사회적 기업에 입사하면 다시 대기업 입사 준비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114	3.614
9. 사회적 기업에 입사하면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114	3.281
10. 사회적 기업에 입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을 것이다.	114	2.561
11. 사회적 기업에 입사하면 부모님과 가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114	3.193
12. 내 출신 대학 정도 수준이면 사회적 기업에 가기에는 아깝다.	114	3.684

V. 결론

본 연구는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층으로서 대학생들이 사회적 경제 대한 인식을 질적연구 방법인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진로에 대한 장애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서울 소재 대학의 SEN 동아리에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하여 5명의 대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포토보이스 3회가 진행되었으며, 1회부터 3회까지 매 회 주제는 이전 회기 종료 전에 참여자들이 회의를 통하여 정하였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에서 사용될 포토보이스 기법에 대해 소개가 진행되었고, 포토보이스 1회는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란’, 2회는 ‘나에게 SEN이란’, 그리고 3회는 ‘나의 향후 진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SEN 활동을 한 대학생들의 눈을 통해 바라본 사회적 경제의 의미, SEN 동아리 활동의 의미, 향후 진로에 대한 내용과 연구를 통해 표현된 사진의 일부를 그대로 정리하여 실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일상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였고, 사진의 제목을 정하고, 사진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사회적 경제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 대학생들은 사회적 경제 대하여 사회의 ‘다양성’, ‘배려’, ‘협동’, ‘협력’, ‘도움’, ‘이해상충’ 등으로 찍은 사진을 의미화 하였다. 이는 인간의 경제 행위 가운데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Defourny & Develtere, 1999; 노대명, 2009; 신명호, 2009). 또한 참여 대학생들이 이해상충을 의미화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경제를 선의의 이미지로 보는 반면에 진로에 있어서는 고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 대학생들은 SEN에 대하여 ‘즐거움’, ‘행복’, ‘희망’, ‘공동체’, ‘소속감’, ‘애증’ 등으로 찍은 사진을 의미화 하였다. 이는 SEN 활동을 하는 참여 대학생은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 소셜비즈니스 분야의 폭 넓은 스테디를 토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동아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애증을 의미화 하였는데 이는 SEN 동아리 활동이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 참여 대학생들은 향후 진로에 대하여 ‘막막함’, ‘하고 싶은 일’, ‘공공에 대한 진로’ 등으로 찍은 사진을 의미화 하였다. 참여 대학생의 막막함으로 취업에 대한 고민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며, 현실적으로 취업에 대한 압박감을 상당히 느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일을 하면서 본인의 꿈

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공공에 대한 진로는 대부분 함께하는 삶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진로를 선호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사회경제적 조직으로 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선택에 있어서 정서·성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 즉 월급을 우선시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진로 기피를 유발하는 정서·성격적인 요인의 소재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차원이다. 이는 사회인지이론의 진로선택을 설명하는 선택모형에 성격 등의 개인적 배경과 더불어 사회·맥락적인 배경이 결과 기대 및 진로 목표 선택에 함께 관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Lent et al., 1994).

추가분석을 통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사회적 기업이 공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은 사회적 기업의 미래에 대한 의견은 사회적 기업이 질적 성장과 고객 맞춤 서비스에 치중해야 할 것이며 제도적 악용의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은 사회적 기업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의견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문영역을 쌓고 싶은 이유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은 사회적 기업의 진로 기피요인에 대한 의견은 사회적 기업의 연봉과 미래 모습이 진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사회적 경제 대학생의 인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인도 사회적 경제 알고 있지 못하거나 편견과 고정관념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 대학생들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진로 기피요인으로 주변의 인식과 대기업과의 월급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심리적 보상을 해 줄 있는 요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 관련 강좌 개설 확대와 사회적 경제 전문 분야 양성과정을 위한 학위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해 보여준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적 경제 대한 열정과 지식 그리고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 사회적 경제에 관련한 다양한 강좌 개설 및 전문 영역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학위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수한 인재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진출함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정당성은 해당 조직이 사회적으로 동의된 규칙, 규범, 기준, 실행 방식 등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정도이다(Aldrich & Fiol, 1994; 김주희 외, (2014)). 특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정당성이 높아질 때 대학생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로가 활발해 질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건설적인 피드백, 충고, 사회적 비교 등을 제공함으로써 부정적인 시각과 위험성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조영복 외, 2108).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한 사회적 경제, SEN 활동, 공공에 대한 향후 진로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학습한 대학생들이 사회적 경제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미래에 대해서도 보다 더 낙관적이라는 것을 개인 참여적 실험연구인 포토보이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처음으로 표현해 보고 확인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인원이 5명으로 매우 소수이며, 대상자들이 사회적 경제를 학습한 이력이 있어 그와 대비되는 일반대학생도 포함되었으면 좀 더 폭넓은 연구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

- 강미라·조인수·落合俊郎(2013). 지로적장애인 관계자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인식조사: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8(3), 111-128.
- 곽선화(2010). 2008 사회적기업 인증분석. *사회기업연구*, 3(1), 135-165.
- 김경오(2014). 중규모 S대학 재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양체육 기반 신체활동의 의미, 문제, 그리고 실천 대안: 포토보이스. *한국체육학회지*, 53(3), 107-125.
- 김경오·이규일(2013). 은퇴한 여자운동선수들의 사회 장벽과 대안 모색: 포토보이스.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6(3), 25-52.
- 김도현(2016). 교육 분야 질적연구의 도구로서 사진에 관한 시론적 고찰. *교육인류학 연구*, 19(2), 1-35.
- 김주희·김창수·남대일(2014). 사회적 정당성이 벤처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4), 13-25.
- 김진희·김영순·김지영(2015). *질적연구여행* 경기도; 북코리아.
- 노대명(2009). 사회적 경제를 강화해야 할 세 가지 이유. *창작과 비평*, 145, 73-93.
- 송백석(2011). 사회적 경제모델과 한국의 사회적기업정책. *공공사회연구*, 1(2), 5-32.
- 서운석(2012). 보훈대상자의 사회적기업 인식에 대한 연구: 취업신청 대기자를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11(4), 179-204.
- 심미영·염동문·전재명·박정배(201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용자의 주관적 인식유형 연구. *사회과학연구*, 28(4), 231-255.
- 신명호(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 11-44.
- 신명호(2013). 사회적경제와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적경제리뷰*, 2, 서울. 아르계,
- 양명주·김봉환(2015). 한국대학생의 중소기업 입사 기피를 유발하는 정서 성격적 요인 탐색. *취업진로연구* 5(2), 1-28.
- 이신모(2012). 한국과 태국 학생들의 사회적기업 창업 인식에 한 비교연구. *한국창업학회지*, 7(2), 1-27.
- 이원지·장승희(2013). 노화에 대한 인식과 자기묘사: 질적연구방법 포토보이스 (photovoice)를 활용하여. *글로벌사회복지연구*, 3(2), 25-46.

- 이재희·라미영·방실·Canape, K. E.(2012).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표현하는 “일과 나”: 포토보이스 (Photovoice) 방법론 적용. *학교사회복지*, 23 257-280.
- 이현주(2015).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포토보이스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위기관리논집*, 11(4), 243-268.
- 유럽사회적경제(2008). (http://www.socioeco.org/bdf_organisme-478_es.html)
- 장원봉(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눔의 집.
- 전정식·김경미·유동철·김동기·신유리(2013).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포함 연구. *정신지체연구*, 15(2), 305-330.
- 정태인·이수연(2013). *협동의 경제학*. 레디앙, 서울.
- 조영복·손진현·정기범·이나영(2018).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 예비창업가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1), 89-104.
- 최진실(2016). *무용전공대학생이 인지하는 ‘나’: 자아정체성의 탐색*.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사회기업진흥원(2018).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보고서*.
- 한상진(2008).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창출전략-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넘어서. *노동사회*, 131, 10-19.
- 홍현미라(2014). 유아통합지원 실천의 지역사회변화 인식에 관한 포토보이스 연구: ‘시소와그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6(4), 233-255.
- 황윤미(2014). *진로의사결정의 방법, 단계, 유형이 대학생 진로의사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Aldrich, H., & Fiol, M.(1994). Fools rush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industry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4), 645-670.
- Blackman, A., & Fairey, T.(2007). *The photovoice Manual a guide to designing and running participatory photography project*. London: Photovoice.
- Blustein, D. L., Schultheiss, D. E. P., & Flum, H.(2004). Toward a Relational Perspective of the Psychology of Careers and Working: A Social Constructionist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 423-440.
- Cho, Y. B., Son, J. H., Jung, K. B., & Lee, N. Y.(2018).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Preliminary Social Entrepreneurs and General Entrepreneur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1), 89-104.
- Choi, J. S.(2016). *An Exploration on the Self-Identity of Dance-Majored College Students*,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 Cook, K. L.(2014). Beginning a classroom inquiry: using photovoice to connect college students to community science, *Journal of College Science Teaching*, 43(6), 28-33.
- Defourny, J., & Develtere, P.(1999). *The Social Economy: A Worldwide Making of a Third Sector*. In L'économie Sociale au Nord et au Sud, edited by J. Defourny, P. Develtere, and B. Fonteneau. De Boeck.
- Emmerling, R. J., & Cherniss, C.(2003).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Career Choice Proc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2), 153-167.
- European Social Economy(2008). http://www.socioeco.org/bdf_organisme-478_es.html
- Hartung, P. J.(2011). Barrier or Benefit? Emotion in Life-Career Desig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3), 296-305.
- Han, S. J.(2008). Social Companies and Job Creation Strategies Beyond Social Job Policies, *Korea Labour and Society Institute*, 131, 10-19.
- Hong, H.(2014). Community Change Perceived by Participants in the Integrated Program for Early Children Development with Low-Income Families Using Photo-Voice Method, *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6(4), 233-255.
- Hwang, Y. M.(2014).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Methods, Decision-Making Stages, and Decision-Making Style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Quality of Undergraduate*,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 Jang, W. B.(2006). *Social Economy*, Press of Sharing House.
- Jun, J. S., Kim, K. M., Yu, D. C., Kim, D. K., & Shin, Y. R.(2013). Social Inclusion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Using Photovoice Method.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5(2), 305-330.
- Jung, T. I., & Lee, S. Y.(2013). *Co-Operative Economics*, Redian.
- Kang, M. R., Cho, I. S., & Toshiiri, O.(2013).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Social Enterprise for People Concerned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8(3), 111-128.
- Kwag, S. H.(2010). Performance Analysis and Tasks of Social Enterprise Certified in 2008, *Social Enterprise Studies*, 3(1), 135-165.
- Kidd, J. M.(1998). Emotion: An Absent Presence in Career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2(1), 275-288.
- Kim, K. O.(2014). Student Perceptions of Meanings, Barriers, and Improvement Planes for Physical Activity Through Courses in a Mid-sized S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3(3), 107-125.
- Kim, K. O., & Lee, G. I.(2013). Retired Female Athlete` Social Barriers and Alternative Strategies: A Photovoice Stud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26(3), 25-52.
- Kim, D. H.(2016). The Inventory Review on Photography as a Qualitative Research Tool in Education, *Anthropology of Education*, 19(2), 1-35.
- Kim, J. H., Kim, C. S., & Nam, D. I.(2014). The Impact of Social Legitimacy on the Performance of New Ventur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4), 13-25.
- Kim, J. H., Kim, Y. S., & Kim, J. Y.(2015). *Journal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Gyeonggi-do; BookKorea.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2018). *Social Enterprise Performance Analysis Report*.
- Lee, S. M.(2012). Comparative Study on the Recognition of Social Enterprise Venturing in Korea and Thailand,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7(2), 1-27.
- Lee, W. J., & Chang, S. H.(2013). The Perception of Aging and Self-Description: Through Research Based-Photo

- Voice, *Global Social Welfare Review*, 3(2), 25-46.
- Lee, H. J.(2015).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Social Enterprise-Using Photovoice Methodology,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11(4), 243-268.
- Yi, J. H., Ra, M. Y., Bang, S., & Canape, K. E.(2012). School Social Workers' Perspectives on "Work and Myself": Using Photovoice Methodolog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3, 257-280.
- Lazarus, R. S.(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1994). Toward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Miller, Z. D., Quigley, C., Hallo, J. C., & Dogbey, J.(2016). Investigating wildlife and grazing perspective of keny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for Nature Conservation*, 32, 44-52.
- Minthorn, R. S., & Marsh, T. E. J.(2016). Centering indigenous college student voices and perspectives through photovoice and photo-elici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47, 4-10.
- Noh, D. M.(2009). *Three Reasons to Strengthen the Social Economy*, Changbi-Publishers.
- Palibrods, B., Krieg, B., Murdock, L., & Havelock, J.(2009). *A practical guide to photovoice: sharing pictures, telling stories and changing communities*, Winnipeg, MB: Prairie Women's Health Centre of Excellence.
- Saka, N., Gati, I., & Kelly, K. R.(2008).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3), 403-424.
- Song, B. S.(2011). Social Economy Model and Social Enterprise Policy in Korea, *Journal of Public Social Studies*, 1(2), 5-32.
- Suh, W. S.(2012). An Analysis of Patriots and Veterans' Recognition on Social Enterprise,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11(4), 179-204.
- Sim, M. Y., Yeum, D. M., Jeon, J. M., & Park, J. B.(2012). A Study on the Subjective Recognition Types of User for Social Enterprise-Focused on Q Methodology, *Social Science Research*, 28(4), 231-255.
- Shin, M. H.(2009). A Study of Conceptualizing 'Social Economy'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75, 11-46.
- Shin, M. H.(2013). Social Economy, State, and Democracy, *Korean Foundation for Social Investment*, 2.
- Wang, C. C.(1999). Photovoice: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Strategy Applied to Women's Health, *Journal of Women's Health*, 8(2), 185-192.
- Wang, C., & M. A. Burris.(1994). Empowerment through Novella: Portraits of Participation, *Health Education Quarterly*, 21(2), 171-186.
- Yang, M. J., & Kim, B. W.(2015). Investigation of Emotional and Personality Factors Korean University Students' Escaping from Entering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5(2), 1-28.

A Study on Youth Career 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Social Economic Perception of Young People: Using Photovoice Methodology*

Park, Jae-Whan**

Lee, Il-H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college students perceive social economics as a young age. This study was conducted three times at intervals of two weeks with five college students who are engaged in SEN club activities in Seoul, Korea.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participatory practice research technique called Photovoic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Participants in the main topic of social economy were selected by the participants as 'Social economy is', 'SEN for me' and 'My future career'.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students of the study group have taken pictures of the social economy in terms of 'diversity', 'consideration', 'cooperation', 'cooperation', 'help' and 'conflict of interest'. Second, th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research semantics mean the pictures taken with 'enjoyment', 'happiness', 'hope', 'community', 'sense of belonging' and 'affection'. Third, the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have taken the meaning of the pictures taken in the future, such as 'clumsiness', 'what they want to do', 'career towards the public'. Finally, in-depth interviews on the career paths of graduates reveal that it is not easy to advance into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e practical guidelines where the curriculums needed for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graduate schools by suggesting consistency for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curriculum design. It was reflected the survey result from the graduate students taking the entrepreneurship subjects. Therefore, it will contribute the foundation of the present curriculum of Entrepreneurial Graduate School.

Keywords: Social Economy, SEN Student Club, Photovoice, Career Indecision

* This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the Happiness Foundation.

** First Author,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jaypark@cau.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lih2114@cau.ac.kr